금호패밀리랜드 어떻게 되나

2011년 6월 관리·운영권 광주시로 이전

市, 우치공원 호남 최대 테마파크 조성

새 사업자 선정·직영·기간 연장 '고민'

리모델링 비용 수백억…금호 투자 기대

금호 측, 비용에 큰 부담…신중한 입장

광주시가 오는 2013년까지 우치근린공원을 호남권 최대의 자연생태형 테마파크로 새롭게 조성하기로 하면서 2011년 6월로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되는 금호패밀리랜드의 향방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시가 관리·운영권을 넘겨받게 되면 재입찰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직접 시가 운영하는 방안, 기존 사업자에게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6일 금호패밀리랜드에 따르면 호남권의 유일한 종합놀이공원인 금호패밀리랜드 내 놀이시설은 모두 28가지로, 1991년 개장 당시 267억원을 포함해 30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막대한 자본투자로 초기에는 한동안 계속 적자를 봤으나 최근 들어서는 매년 수억원씩 흑자를 내고 있다. 매년 70만명이 찾고 있으며 연간 매출은 70억원 안팎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호패밀리랜드는 당초 금호측이 건설해 오는 2011년 6월까지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광주시에 기부채납됐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노후된 우치동물원 만을 새롭게 단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오다 그 범위를 패밀리랜드까지 확대시켜 자연생태형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발주한 '우치동물원 시설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우치근린공원의 리모델링 방향과 주체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우치동물원(12만1천302㎡)을 포함해 118만3천㎡의 면적에 달하는 공원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막대한 초기 자본이 소요되는데다, 수익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비지원도 불가능해 사실상 금호 측에 리모델링 비용을 투자하도록 한 뒤 관리·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큰데다 지역기업 가운데 금호만큼 자금력을 가진 기업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적은 여건 탓이다.

금호측은 이와 관련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리모델링에 수 백억원이 드는데다, 이를 회수하는 데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우치동물원은 시가, 금호패밀리랜드는 금호가 각각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호남 유일의 종합놀이공원인 금호패밀리랜드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따라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며 "현재 금호 측의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없었지만 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면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모텔 장식물 사람 잡을 뻔

6일 광주시 북구 임동 H모텔 옥상에 설치된 기둥 형식의 대형 장식물(지름 80㎝, 높이 2.5m) 2개 중 1개가 무너져 수백장의 벽돌이 산산조각이 난 채 도로를 뒤덮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임동 모텔 옥상

80㎝×2.5m 1개 붕괴

벽돌 수백 장 '와르르'

경찰 교통 통제 '소동'

광주에서 벽돌 등으로 쌓아올린 모텔 옥상의 대형 장식물이 붕괴돼 경찰이 교통통제에 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6일 낮 12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임동 6층짜리 H모텔(연 면적 600㎡)에서 이 건물 옥상에 설치된 지름 80㎝, 높이 2.5m의 원형 장식물 2개 중 1개가 무너지면서 가로 20㎝, 세로 10㎝의 벽돌 수 백 장이 18m 바닥으로 떨어졌다. 추락지점은 H모텔 정문 앞 폭 10m 도로였다. 추락 당시 주변에는 차나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추가 피해는 없었다.

이 사고로 이 일대 소통이 1시간여 동안 통제됐으며 바닥에 떨어진 벽돌 300㎏(추정)이 치워진 뒤 소통이 재개됐다.

원형 장식물이 붕괴 된 H모텔은 돌·벽돌·콘크리트블록으로 쌓아 올려 만든 건축물로 지난 1994년 12월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6개월 전부터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원인 조사에 나선 북구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영업 중단에 따른 관리소홀로 원형 장식물이 기울면서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 H모텔은 조만간 철거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

남구 前 자치협의회장 실형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6일 "아들을 구청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 남구 주민자치협의회장 A(7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7년 12월 B씨로부터 "빌려준 돈 2천만원을 갚는 대신 아들을 구청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갚지 않은데 이어 지난 4월 추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

부녀자 납치·강도 용의자 영상 공개

광주서부경찰, 공개수사 착수

지난 14일 광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0대 부녀자를 납치한 뒤 빼앗은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달아난 용의자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사진〉이 공개됐다.

광주서부경찰은 6일 새벽 귀가 중이던 L(여·55)씨를 납치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20~30대 남성의 얼굴을 공개했다. 평범한 체격에 청바지를 입고 모자를 쓴 용의자가 점퍼에 손을 넣고 L씨를 향해 걸어가는 장면이다.

경찰은 L씨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면식범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공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또 담양~고창 고속도로에 버린 L씨의 고급 승용차를 확보, 지문을 채취해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에 설치된 CCTV를 분석 중이다.

한편, 이 용의자는 지난 5일 새벽 5시께 서구 금호동 J아파트 110동 지하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L씨를 차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뒤 빼앗은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 100만원을 인출해 달아났다. L씨는 용의자가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곡성휴게소에서 잠시 차량을 비운 틈을 타 탈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골동품 31차례 절도

광양경찰, 50대 구속

광양경찰은 6일 시골마을 등을 돌며 골동품을 훔친 황모(58)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7년 5월께 보성군 이모(46)씨 집에서 중요 민속자료 109호인 반닫이를 훔치는 등 전남 동부권과 전북, 경남 일대를 돌며 31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 상당의 골동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의 절도 금액은 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하면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교통경찰 '단속보다 소통'

교차로에 집중 배치

교통외근 근무개선

경찰이 퇴근시간 대에 교통경찰을 교차로에 집중 배치하는 등 '소통' 위주의 교통정리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광주 등 일부 지역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해온 '교통외근 근무개선안'을 이달부터 전국 경찰서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은 기존 단속 위주에서 소통 위주로 교통경찰 활동의 중심축을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경찰 인력 보강을 위해 주근과 야근 경찰관이 퇴근시간대인 오후 4~8시에 동시 근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변경했다.

경찰은 또 각 경찰관에게 담당 교차로를 지정하는 '교차로 현장 책임제'를 시행하는 한편, 심각한 법규 위반이 아니면 단속 대신 계도장을 발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농촌 축사 빌려 불법 게임장 운영

쌍나팔

○…한적한 농촌의 축사를 불법게임장으로 개조해 부당이익을 챙겨온 일당 9명이 무더기로 경찰서행.

○…강진경찰은 5일 김모(40)씨 등 9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30일 강진군 신전면 A(43)씨 축사에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38대를 설치해놓고 하루 평균 150~2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들을 차창이 가려진 승합차에 태워 4~10㎞를 이동한 뒤 게임장으로 들여보내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경찰의 야간 급습에 허망하게 '일망타진'. /강진=남철희기자 choul@